



“더 멀리, 더 높이 뛰기 위한 준비과정”

지금부터 저의 가장 찬란했던 길고 긴 2년간의 이야기를 풀어 보고자 합니다.

25살, 저는 세상에 무서울 것 없는 1년차 새내기 직장인이었습니다. 그해 봄, 초기 감기 증상처럼 기침이 나고 약간의 미열과 피곤함을 자주 느꼈습니다. ‘과로해서 그런가보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내과와 이비인후과를 다니며 독감에 걸렸다고 생각했지 결핵의 전조증상인지 전혀 눈치 채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 후 잠을 자던 도중, 왼쪽 가슴의 통증과 잔기침이 심하게 나면서 객혈이 시작되었습니다. 서너 번 정도의 객혈이 반복되었고 급하게 대학

병원 응급실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 ‘결핵’이었습니다. 타인에게 감염 우려가 있어 2주간 격리병동에 입원 후 지속적 약물치료가 중요하다고 들었던 터라 하루도, 약 한 알도 빠뜨리지 않고 식전 약을 복용했습니다.

1차 약물치료가 시작된 지 6개월 후 제 상태는 좀처럼 호전되지 않았고 객담배양 검사결과 1차 약물로는 치료가 되지 않는 ‘다제내성결핵’이란 걸 알았습니다. 처음 듣는 병명으로 덜컥 겁이 났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얼마나 무서운 질병인지, 왜 하필 나인지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검사결과를 부정하며 협

회에 몇 번이고 확인을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똑 같았습니다. 두려움은 커졌고 죽음의 문턱에 있는 건 아닌지 온갖 걱정과 스트레스로 직장을 그만두고 치료에 목숨을 걸어야겠다는 의지와 각오로 독하게 마음을 굳혔습니다.

서울 소재 상급병원으로 옮겨 본격적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부작용을 감수하고 신약을 복용했습니다. 약제비만으로 한 달 100여만 원이 지출되고 약을 복용하면서도 완치가 가능할까라는 두려움과, 온 몸에 부작용이 진행되면서 그 두려움은 점점 커졌습니다.

약제비 부담으로 보건복지부에 질의응답을 신청했으나 원하는 답변을 들을 수 없었고, 가족들에게 미안함은 점차 죄책감으로 변해갔습니다. 신약을 복용한 지 3개월 후 여전히 객담에서 결핵균이 검출되었고 주치의는 폐절제술을 권했습니다. 걱정하는 가족들 앞에서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지만 가슴이 두근거리고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과 절망감에 밤마다 몰래 숨죽여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약 8시간에 걸친 수술이 끝났고 여전히 신약을 복용하며 남은 폐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벼운 운동과 긍정적 마음을 갖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가족들의 따뜻한 격려와 그 사랑을 알기에 일부러 즐겁게 생활하고, 지치고 힘든 마음을 다스리며 하루하루 시간을 보냈습니다. 2개월마다 여러 검

사를 하며 긴장과 두려움은 지속되었고 부작용 또한 계속되었습니다. 좀처럼 빨리 낫지 않자 저의 꿈마저 잃어버리게 될 것 같은 열등감은 쌓여만 갔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지낼 수 없겠다는 생각에 다시 한 번 힘을 내어 제 마음의 울타리를 세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라는 말 아시죠?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며 ‘나는 예쁘다’라고 생각하고, 먹고 싶은 음식도 찾아다니고, 많이 웃고, 조금씩 삶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소소한 일상과 삶의 모든 것들이 감사함과 벅참으로 다가왔습니다. 적극적인 치료의지와 꾸준한 약물복용, 긍정적 사고는 저의 몸과 마음을 건강히 다지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약물치료와 수술을 통해 약 2년 만인 올해 가을, 저는 드디어 완치판정을 받았고 길고 긴 레이스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정기검진을 통해 몸 상태를 확인하고 있지만 이제는 웃으며 저의 수기를 들려줄 수 있는 이 순간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멀리 뛰기 위해서는 목표를 응시하고 몸을 숙여 웅크린 준비자세가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의 지금 이 순간이 그런 때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더 멀리, 더 높이 뛰기 위한 준비과정의 일부라 생각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길 함께 응원합니다! †